

양계농 소득증대 위해 고도의 기술지원

취재/이인수기자

우 리나라 배합사료산업은 국민소득증대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되어가는 축산물소비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이미 배합사료생산량이 1천만톤을 돌파하여 일부에서는 선진 외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축산물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80년 대말을 정점으로 하는 수입개방론이라는 딱딱한 높은 벽에 부딪친 축산업과 함께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서두르는 산고를 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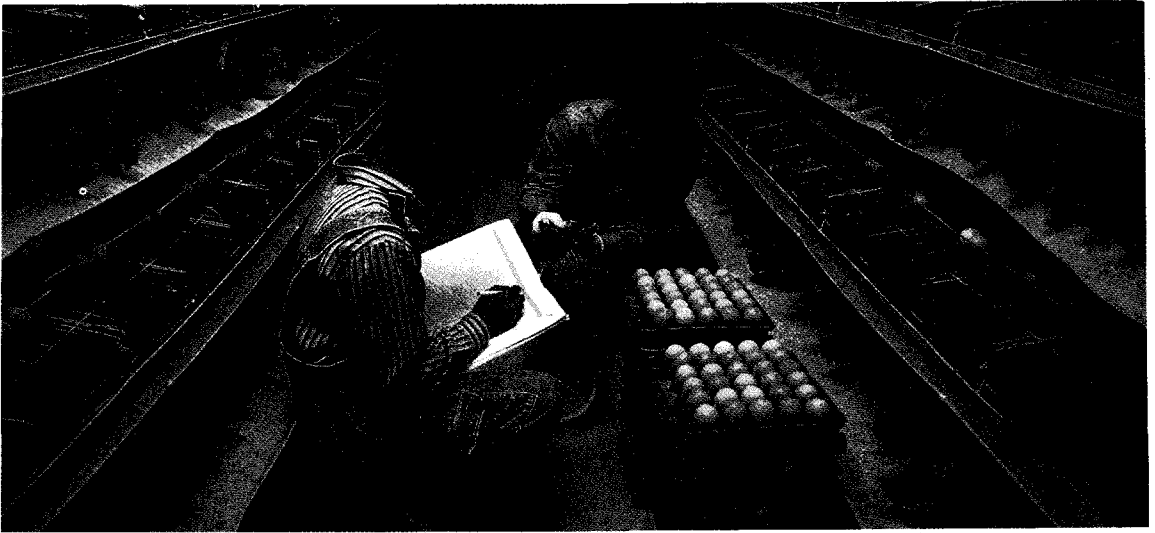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법칙에 따라 물량판매 방식 위주로 양적발전만을 지향해오던 천후제일사료(대표 이희택)는 자체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수입개방

을 맞아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개척해간다는 차원에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기업이념을 내세웠고 천후제일사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전사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

1960년 제일산업(주)로 출발하여 30년의



이희택 사장



고도의 축산경영기술 제공을 실현해가고 있다.

역사를 맞은 천호제일사료는 사료판매를 통한 고객확보 면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기존 사업분야의 전문화와 내실화도 함께 꾀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료공급만이 목적이 아니고 축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내 축산환경에 적합한 편리하고 경제적인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공급함과 동시에 가축의 개량, 농장 시설의 현대화, 축산물 소비의 촉진, 축산물의 수출 상품화, 축산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 형성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국제경영 환경 속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을 굳건히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영양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값싸게 공급해가는 것이 천호제일사료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창립30주년의 경륜이 대변해주듯이 우수한 제품, 과학적체계와 현장실험으로 확립된 사양프로그램으로 양축농가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다. 현재 양축농가에 사료공급을 위해 인천, 대전의 배합사료 공장을 중심으로 하치장 4곳, 대리점 80개소, 판매본부 5개소를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축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농장의 시설현대화로 규모가 점차 커감에 따라 이에 알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세분화·전문화로 개개 농장과 연결고리를 맺어가고 있다.

양계사료에 있어 특히 고도의 집약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자동화 무창계사같은 경우는 종전 재래식 계사에서 사용하던 사료개념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 동물임상연구실에서 건강감시제도를 위해 ABA(혈액자동분석기), ELISA기기 등 최첨단 과학장비를 갖추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하운 부장

현재 마케팅부에서 양축가와 더불어 최일선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하운부장은 계사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각 농장에 적합한 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ELISA 테스트 및 MPT(Metabolic Profile Test)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체크 및 혈액중 영양성분까지 분석하여 계군에 적합한 사료를 배합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대리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가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무창계사에 적합한 IP(ideal protein) 사료를 개발, 자가배합사료 차원에서 양축가가 원하는 사료를 주문받아 양축가가 원하는대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체계있게 만들어 판매망을 펼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사양가들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농장경영 방식을 바꾸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펠렛사료 판매시 가루가 발생되는데 이는 제조시부터 펠렛분화율에 입각하여 생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도인데도 무조건 거부하다 보니 부득이 가루를 재공정해야 하는데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예도 지적하고 있다.



최적의 사료공급을 위해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농장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전축종별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데 양계는 에그피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중에 있다. 산란계, 육계제품과 사양프로그램으로 계절배합이론에 의거 8단계 품질관리프로그램으로 보다 완벽한 품질을 생산하여 양축가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으며 장래에는 유통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한국 축산업의 해외 시장개척에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어 천호제일사료는 한국제분, 전진산업, 신광여고, 논산여상 등 운산그룹의 한 가족으로 양축가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